

제 4 교시

사회탐구 영역 (윤리와 사상)

성명

수험 번호

제 [ ] 선택

윤리와 사상

1.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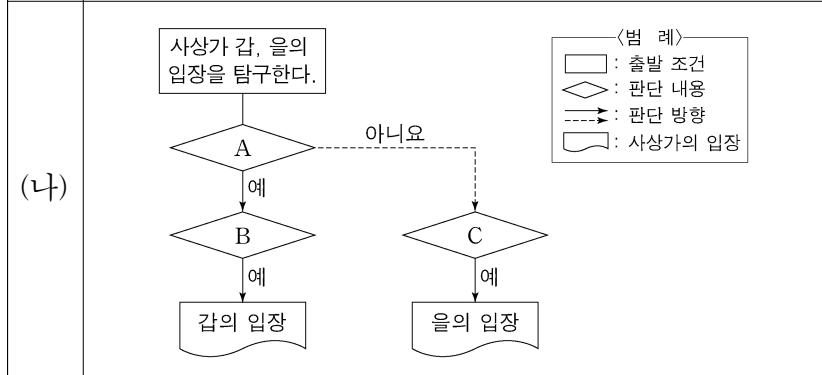
사랑스러운 제자 ○○님께

지난 번 편지에서 질문한 인간다움의 본질인 인(仁)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. 그것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서(恕)를 실천하는 것입니다. 즉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토대로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방법과 자신이 이루고자 하면 타인도 이루게 해 주는 방법이 그것입니다.

- ①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서 사회 공동체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.
- ② 모든 분별적 인식에서 벗어나 만물을 차별 없이 응대해야 한다.
- ③ 겸허와 부쟁(不爭)의 덕을 지니고 무위자연의 삶을 지향해야 한다.
- ④ 사성제(四聖諦)를 깨달아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- ⑤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(私欲)을 극복하여 예(禮)를 회복해야 한다.

2. (가)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을 (나)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, A~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 [3점]

(가) 갑: 쾌락에 탐닉하여 쾌락에 굴복하는 것이 가장 큰 무지이다. 어느 누구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행하지 않는다. 덕은 일종의 삶이다.  
 을: 부나 군중으로부터의 명예를 소유함에 의해서도, 한없는 욕구로부터 생기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, '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'은 끝나지 않는다.



- <보 기>
- ㄱ. A: 덕은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 본래적 가치를 지니는가?
  - ㄴ. B: 정의로운 사람은 행복하지만 부의정한 사람은 불행한가?
  - ㄷ. C: 자연적인 욕구의 충족이 쾌락의 증대를 보장하는가?
  - ㄹ. C: 이성(理性)은 운명(命運)이 주는 고통(苦痛)을 기꺼이 감내(甘耐)하게 하는가?

- ① ㄱ, ㄴ    ② ㄱ, ㄷ    ③ ㄴ, ㄷ    ④ ㄴ, ㄹ    ⑤ ㄷ, ㄹ

3. 중세 서양 사상가 갑,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

갑: 세상 모든 것은 영원법에 의해 지배되는데, 인간은 다른 피조물보다 신의 섭리에 더 뛰어난 방식으로 순종한다. 이성적 피조물이 영원법에 참여하는 것이 자연법이다.  
 을: 실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실체의 본성에서 나오지만, 삼각형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의 본성이 아니라 자연 질서에서 나온다. 따라서 양태는 실체가 없다면 존재할 수 없다.

- ① 갑: 실정법이 자연법에 위배되어도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정당하다.
- ② 갑: 이성이 선으로 인식한 자기 보존의 성향을 따르는 행위는 옳다.
- ③ 을: 하나의 실체는 다른 실체에서 필연적으로 산출될 수밖에 없다.
- ④ 을: 존재하기 위해 다른 것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것은 없다.
- ⑤ 갑과 을: 세상의 모든 존재는 신이 계획한 목적을 위하여 움직인다.

4. 고대 동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 [3점]

갑: 도(道)는 두루 통(通)하여 만물과 하나를 이룬다. 따라서 흠어짐은 곧 이룸이며 이룸은 곧 어그러짐이다. 진인(真人)은 만물이 통하여 하나임을 알아 그 자연스런 쓰임에 맡겨 둔다.  
 을: 도는 낱고 덕(德)은 기르니, 만물이 나타나서 형세(勢)로써 완성된다. 따라서 도를 높이고 덕을 귀하게 여김은 명령하지 않아도 늘 스스로 그러하다[自然].

- <보 기>
- ㄱ. 갑: 타고난 본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물아일체에 도달할 수 없다.
  - ㄴ. 을: 제물(齊物)을 통하여 정신의 절대적 자유에 도달한다.
  - ㄷ. 을: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으며 성인(聖人)도 어질지 않다.
  - ㄹ. 갑과 을: 도는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이면서 만물에 내재한다.

- ① ㄱ, ㄴ    ② ㄱ, ㄷ    ③ ㄴ, ㄷ    ④ ㄴ, ㄹ    ⑤ ㄷ, ㄹ

5. 근대 서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 [3점]

갑: '나는 생각한다.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.'라는 이 진리는 명석판명한 것이다. 나는 이것을 내가 찾고 있던 철학의 제1원리로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.  
 을: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다. 도덕성이 오직 이성의 영역을 통해서만 발견된다고 우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. 그러므로 도덕적 구별은 이성의 산물이 아니다.

- ① 갑: 더 이상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명한 진리는 없다.
- ② 갑: 방법적 회의는 사유하는 '나'라는 존재의 확실성에서 출발한다.
- ③ 을: 유용성은 도덕감의 근원으로 타인과 관련해서만 고려된다.
- ④ 을: 이성은 도덕적 구별의 원천이 아니지만 정념을 좌우해야 한다.
- ⑤ 갑과 을: 인간의 이성은 추론적 사유와 진위 판단 능력을 지닌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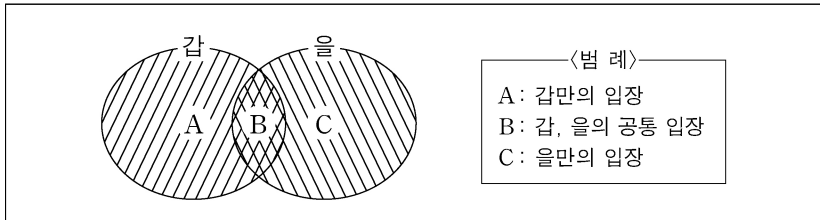
## 2 (윤리와 사상)

## 사회탐구 영역

[6~7] 갑,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. 물음에 답하시오.

갑: 이(理)의 본연의 본체[體]는 감정이나 의지[情意]도 없고 조작도 없다. 이의 지극히 신묘한 작용[用]은 발(發)하여 이르지 아니함이 없다.  
 을: 이는 무형하고 기(氣)는 유형하므로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. 이는 무위(無爲)하고 기는 유위(有爲)하므로 기가 발하면 이가 탄다.

6. 갑, 을의 입장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, A~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 [3점]



<보기>  
 ㄱ. A: 이와 기 중에서 주재성을 지니면서 발할 수 있는 것이 있다.  
 ㄴ. B: 칠정 중에서 선함과 사단 사이에 도덕적 우열을 가릴 수 있다.  
 ㄷ. B: 이는 본래 하나의 태극(太極)이지만 만물도 각각 동일한 하나의 태극을 지니고 있다.  
 ㄹ. C: 주된 배(所主)가 이에 있는가, 기에 있는가에 따라 사단과 칠정을 구별할 수 있다.

- ① ㄱ, ㄴ    ② ㄱ, ㄷ    ③ ㄴ, ㄷ    ④ ㄴ, ㄹ    ⑤ ㄷ, ㄹ

7.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가 갑, 을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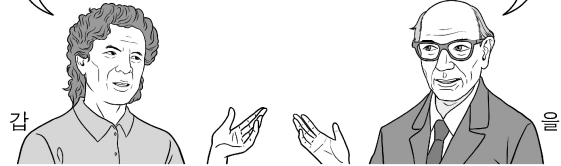
어린 아이가 우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측은해 하면서도 가서 구하지 않는다면 그 측은해 하는 마음만으로는 인(仁)이라 할 수 없다. 욕을 하거나 발로 차면서 밥을 줄 때, 이를 수오(羞惡)하면서도 거절하지 않는다면 그 수오하는 마음만으로는 의(義)라 할 수 없다.

- ① 모든 인간은 측은지심과 수오지심을 가지고 태어남을 간과한다.  
 ② 시비지심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지(智)가 형성됨을 간과한다.  
 ③ 인간의 선천적인 본성은 하늘이 부여한 명령(天命)임을 간과한다.  
 ④ 인간과 동물의 본성은 영지의 기호라는 점에서 동일함을 간과한다.  
 ⑤ 선을 지향하는 본성을 통해 자유 의지가 형성되어야 함을 간과한다.

8. 다음은 현대 사회사상가 갑, 을의 가상 대화이다. 갑,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법은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 오히려 지켜 줍니다. 법이 모든 시민을 똑같이 구속한다면 시민들을 타인들의 자의적 의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. 법의 지배는 시민들을 자의적 의지에 예속되지 않도록 합니다.

아닙니다. 법은 언제나 일종의 사술입니다. 설령 자의적 독재의 사술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법이라 하더라도,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. 자유의 경계선은 국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, 그 경계선이 침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유의 핵심입니다.



- ① 갑: 자유는 누군가에게 간섭받지 않는 경우에만 성립한다.  
 ② 갑: 비지배의 자유는 비자의적 지배가 부재할 경우에도 성립한다.  
 ③ 을: 자유의 경계선이 침범되지 않도록 ‘~을 향한 자유’가 실현되어야 한다.  
 ④ 을: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의로운 제도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.  
 ⑤ 갑과 을: 공동체가 외부의 압제에서 벗어나면 개인의 자유도 보장된다.

9. 갑,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들이다. 을의 입장에서 갑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갑: 쾌락의 추구하고 고통의 회피는 입법자가 살펴보아야 할 목적이다. 그러므로 쾌락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무이다. 쾌락과 고통은 입법자가 지니고 작업해야 하는 도구이다.  
 을: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것보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공리주의 원리와 어긋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. 만족해 하는 돼지보다 불만족스러워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낫다.

- ① 이해 당사자들의 행복을 공정하게 고려해야 함을 간과한다.  
 ② 유용성이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임을 간과한다.  
 ③ 보편적 도덕 원리에 근거한 입법의 원칙을 세워야 함을 간과한다.  
 ④ 쾌락을 평가하는 기준이 양으로만 한정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.  
 ⑤ 도덕적 평가의 근거는 규칙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임을 간과한다.

10. 근대 서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

갑: 사회계약은 시민들 사이에 평등을 수립함으로써 그들을 동일한 계약 조건하에 놓이게 하며 동일한 권리를 향유하게 한다. 이 계약의 특성에 의해 일반 의지의 정당한 모든 행위는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의무와 권리를 부여한다.  
 을: 사람들은 사회에 들어갈 때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, 자유 및 집행권을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중에 양도한다. 그것은 오직 그 자신, 그의 자유 및 재산을 더욱 잘 보존하려는 의도에서 행하는 것이다.

- ① 갑: 주권은 일반 의지에 의해 성립하며 정부를 통해 대표된다.  
 ② 갑: 일반 의지가 강요하는 복종은 시민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다.  
 ③ 을: 국가의 기본이 되는 최초의 실정법은 입법권을 확립하는 것이다.  
 ④ 을: 자연 상태에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복은 자연법에 의해 불가하다.  
 ⑤ 갑과 을: 개인은 사회계약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유나 권리를 가질 수 없다.

11. 고대 서양 사상이 가, 중세 서양 사상이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[3점]

가: 우주의 본성을 따라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수동적으로 인내하라. 또한 너의 본성이 네 자신에게 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행하라.  
 을: 신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가 있는 것은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과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. 어떤 사람은 신을 따르고, 어떤 사람은 사람을 따른다.

- ① 가: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일은 인간에게 일어나지 않는다.
- ② 가: 사건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사건에 대한 생각은 바꿀 수 있다.
- ③ 을: 악이 선보다 먼저 실재하지 않았다면 선은 없었을 것이다.
- ④ 을: 인류의 역사는 신이 주는 선과 인간이 만든 악의 투쟁이다.
- ⑤ 가와 을: 세상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궁극적인 원인이 있다.

12. 고대 서양 사상이 가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

가: 선(善) 자체는 인식의 원인으로 인식되는 것들에 진리를 제공하고 인식하는 자에게 그 힘을 제공한다. 통치자는 선 자체를 본보기로 삼고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.  
 을: 모든 선에 공통되는 하나의 선 자체란 있을 수 없다. 건축가가 선 자체를 안다고 자신의 기술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. 현실 세계에서 실현 가능한 선이 중요하다.

- ① 가: 선 자체는 인식의 원인이므로 인식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.
- ② 가: 이성이 파악하는 대상과 감각이 파악하는 대상은 동일하다.
- ③ 을: 선은 인간이 지향하는 가치이자 사물이 갖는 가치가 될 수 있다.
- ④ 을: 모든 선한 것들을 선하게 만드는 근거는 선 자체이다.
- ⑤ 가와 을: 선 자체는 감각으로 지각되지 않는 세계에 존재한다.

13.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. 학생 답안의 ㉠~㉣ 중 옳지 않은 것은? [3점]

서술형 평가

㉠ 문제: 동양 불교 사상이 가,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.

가: 여러 가지 인연으로 생긴 법(法)을 공(空)이라 하며, 가명(假名)이라고도 하며, 중도(中道)라고도 한다. 어떤 한 가지 법도 인연으로부터 생기지 않는 것이 없으니 모든 법이 공 아닌 것이 없다.  
 을: 오직 마음만이 존재할 뿐[唯識] 그 대상은 실재하지 않는다[無境]. 세속인은 허망한 분별의 잠에 빠져서 실재하지 않는 대상을 보면서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, 그것이 실재하지 않음을 여실하게 알지 못한다.

㉡ 학생 답안

가,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, 가의 ㉠ 모든 사물은 독자적인 고유한 성질[自性]을 가진다고 보고, ㉡ 해탈하기 위해서는 있음[有]이나 없음[無]이라는 두 극단에 치우친 견해에서 벗어나 중도의 진리를 바르게 관찰해야 한다고 본다. 그런데 을은 ㉢ 모든 현상은 마음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만 존재한다고 보고, ㉣ 해탈하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릇된 마음에서 벗어나, 모든 진리를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본다. 한편 가, 을은 모두 ㉤ 모든 현상은 다양한 원인[因]과 조건[緣]의 화합에 의해 발생한다고 본다.

- ① ㉠
- ② ㉡
- ③ ㉢
- ④ ㉣
- ⑤ ㉤

14.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의 입장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

의지의 자율과 양립할 수 있는 행위는 허용되지만, 그렇지 못한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. 의지의 준칙들이 자율의 법칙들과 필연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, 그 의지는 신성하고 절대적으로 선한 의지이다. 절대적으로 선하지는 않은 의지가 자율의 원리에 의존하는 것은 구속성이다. 따라서 이 구속성은 신성한 존재와 관련될 수 없다. 이 구속성에서 비롯한 행위의 객관적 필연성을 의무라 부른다.

—<보 기>—

㉠. 선의지를 함유하지 않은 도덕적 의무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.  
 ㉡. 보편화 가능한 준칙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없다.  
 ㉢. 도덕적 의무는 의지를 지니는 모든 존재에게 부과되어야 한다.  
 ㉣. 도덕 법칙의 내적 강제에서 생긴 준칙은 자율성에 어긋나지 않는다.

- ① ㉠, ㉡
- ② ㉠, ㉢
- ③ ㉡, ㉣
- ④ ㉢, ㉣
- ⑤ ㉣, ㉣

15. (가)의 현대 사회사상이 가와 을, 사회사상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(나) 그림으로 표현할 때, A~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(가) 가: 국가는 부분적으로 조세 정책을 통하거나 이자율을 정하는 것 또는 그 밖의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소비 성향에 대해 지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.  
 을: 경제 활동에서 경쟁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계획과 경쟁은 '경쟁에 반하는 계획'이 아니라 '경쟁을 위한 계획'이라는 형태로만 결합될 수 있다.  
 병: 우리는 자본주의적 계획이나 모든 형태의 전체주의적 계획에 반대한다. 그 이유는 이 두 계획이 생산의 공적 통제와 그 결과의 공정한 분배를 배제하기 때문이다.

(나)

- ① A: 공익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투자의 사회화는 거부되어야 함을 간과한다.
- ② B, E: 경쟁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창출될 수 없는 경우에도 정부의 규제는 부당함을 간과한다.
- ③ C: 국가는 사회주의적 계획화를 통해 완전 고용에 힘써야 함을 간과한다.
- ④ D: 시장이 통제에서 벗어나면 생산 수단의 국유화가 필요함을 간과한다.
- ⑤ F: 사적 이윤보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부 기능을 확대해야 함을 간과한다.



# 4 (윤리와 사상)

# 사회탐구 영역

16. 중국 불교 사상가 갑, 한국 불교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

갑: 자성(自性)에는 그림도 어리석음도 어지러움도 없으니 생각  
 마다 반야로 관조하여 법상(法相)을 떠나야 한다. 스스로  
 자성을 깨쳐 돈오돈수(頓悟頓修)하니 점차(漸次)가 없다.  
 을: 자성을 깨달은 뒤에도 닦아서 무위(無爲)에 이르러야 궁극적  
 경지라고 할 수 있다. 깨달은 뒤에 '소를 기르는 수행[牧牛行]'을  
 하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.

- ① 갑: 마음 밖의 부처를 단박에 직관하는 것이 돈오이다.
- ② 갑: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불성(佛性)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이다.
- ③ 을: 선정[定]과 지혜[慧]를 닦을 때 선후의 구분이 필수적이다.
- ④ 을: 오랫동안 누적된 습기(習氣)는 돈오하더라도 바로 제거되지 않는다.
- ⑤ 갑과 을: 깨달음의 완성에 도달하기 위한 수행 과정에서 경전의 가르침은 불필요하다.

17. 현대 서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 [3점]

갑: 현존재의 참된 모습은 그의 실존에 있다. 실존하는 존재자를  
 가리키는 '현존재'라는 이 명칭은 책상, 집, 나무와 같이  
 어떤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'지금 여기에 있는  
 존재'를 표현하고 있다.  
 을: 도덕적 선과 목적은 어떤 것을 해결해야 할 때에만 존재  
 한다. 악은 실제로 존재하는 특정한 악이므로, 교정해야  
 하는 그 결함과 곤란함을 토대로 삼아 상황의 선을 발견  
 하고 계획하고 획득해야 한다.

- ① 갑: 존재의 의미에 대해 물을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자는 인간이다.
- ② 갑: 죽음에 대한 불안을 통해 현존재는 보편적 본질을 완성한다.
- ③ 을: 실험을 통해 검증된 가설은 상황이 변해도 항상 유효하다.
- ④ 을: 악을 개선하는 지식은 절대적인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된다.
- ⑤ 갑과 을: 이성 중심의 객관적인 합리성의 전통을 계승해야 한다.

18. 중국 유교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 [3점]

갑: 치지(致知)의 치(致)는 최대를 확충함이고, 지(知)는 지식과  
 같다. 따라서 치지는 나의 지식을 최대를 확충하여 그  
 지식이 도달하지 않은 곳이 없고자 함이다.  
 을: 치지는 다른 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식을 확충한다는  
 의미가 아니라, 내 마음의 양지(良知)를 사물마다 온전하게  
 실현하는 것이다.

<보 기>

ㄱ. 갑: 의념[意]이 향하는 대상[物]을 바로잡는 것이 격물이다.  
 ㄴ. 을: 양지는 분리되어 있는 앎[知]과 실천[行]을 합일에 이르게  
 하는 능력이다.  
 ㄷ. 을: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감정인 본심(本心)을 따라야  
 한다.  
 ㄹ. 갑과 을: 격물은 마음 안의 이(理)의 보존을 지향한다.

- ① ㄱ, ㄴ    ② ㄱ, ㄷ    ③ ㄴ, ㄷ    ④ ㄴ, ㄹ    ⑤ ㄷ, ㄹ

19. (가)의 근대 한국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(나) 그림으로 표현할 때 A,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(가)	<p>갑: 서양 물건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올바른 도(道)를 밝혀 백성을 교화하고 사단(四端)과 오상(五常)을 넓혀 나가야 한다. 우리 것이 흥성하면 저들 것이 사라지고 이쪽 것이 밝혀지면 저들은 달아날 것이다.</p> <p>을: 동양은 형이상에 밝아서 그 도(道)가 천하에 홀로 존귀하고, 서양은 형이하에 밝아서 그 기(器)는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다. 진실로 우리의 도를 일으킬 수 있다면 서양의 기를 행하는 것은 손바닥을 뒤집듯 쉽다.</p>
(나)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/div> <div style="margin-top: 10px;"> <p>&lt;범례&gt;              → : 비판의 방향              A, B : 비판의 내용</p> <p>&lt;예시&gt;               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.</p> </div>

- ① A: 나라가 혼란할수록 유교의 인륜을 고수해야 함을 간과한다.
- ② A: 살기 좋은 후천(後天) 세계가 현세에 반드시 도래함을 간과한다.
- ③ A: 모든 인간은 평등하므로 신분을 차별해서는 안 됨을 간과한다.
- ④ B: 부국강병을 실현하려면 서양의 기를 수용해야 함을 간과한다.
- ⑤ B: 국제 정세를 파악하여 우리의 도를 변화시켜야 함을 간과한다.

20. 근대 사회사상가 갑, 현대 사회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

갑: 국가는 비참한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인간이 상호 신의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하나의 인격이다. 이 국가는 모든 인간의 인격을 대표하는 '대표자'로서의 권리를 부여받는다.  
 을: 인민의 역할은 다름 아닌 정부를 탄생시키는 것이다. '인민'과 '통치'라는 용어의 의미가 무엇이건 간에, 민주주의는 인민이 실제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또한 의미할 수도 없다.

- ① 갑: 대표자는 계약의 주체에게서 권한을 양도받은 대리인이다.
- ② 갑: 국가는 주권자와 시민들 간의 계약 체결로 인해 설립된다.
- ③ 을: 민주주의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서 추구할 이념이다.
- ④ 을: 시민이 지배하는 정부를 위해 시민의 승인은 반드시 필요하다.
- ⑤ 갑과 을: 국가의 대표자는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따라야 한다.

\* 확인 사항  
 ○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(표기)했는지 확인 하시오.